

소상공인 AI 도입 80% 돌파...활용은 '기초 단계'

경영지원 분야 활용도 높아... '업무시간 단축·효율화' 긍정 디지털 전환 역량 미흡...정부 디지털·AI 사업 참여율 낮아

국내 소상공인들의 인공지능(AI)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 활용 수준은 여전히 초보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양적 확대'는 이뤄졌지만 '질적 성장'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DX·AI 현황 및 정책 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기술 활용률은 80%에 달했지만, 대

부분이 기초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활용은 19.6%, 활용 중단은 0.4%였다. 단 해당 결과는 문서 작성, 키오스크, 배달앱 등 일상적 디지털 기술까지 포함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활용 분야는 회계·세무, 문서 작성 등 경영지원(54.5%)이 가장 높았고, 키오스크·챗봇 등 고객응대(31.8%), 판매·유통(22.3%), 마케팅·홍보(21.3%) 순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경영지원 분야에서 디지털 POS 시스템(68.3%), 고객 응대에서는

AI 통화비서 및 챗봇(66.9%), 판매·유통에서는 온라인 쇼룸몰 운영(51.1%), 마케팅에서는 SNS 채널 운영(52.9%)이 주요 활용 기술로 꼽혔다.

그러나 디지털 활용 수준은 여전히 낮았다.

응답 기업의 83.3%가 '기초·입문 단계'(기초 30.5%, 입문 52.8%)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디지털 전환 역량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디지털 기술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활용 기업의 69.8%는 '업무 시간 단축 및 효율화'를 경험했으며, 25.5%는 '홍보 효과에 따른 매출 증가'를 체험했다. 이외에도 비용 감소(11.0%), 고객 만족도 향상(8.5%)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사용 방식은 소프트웨어 구독

(45.0%)이 가장 많았고, 기기 렌탈(31.8%), 기기 구매(24.8%) 순이었다.

비용 측면에서는 기기 구매 시 '200만원 이상'이 14.1%, 기기 대여 시 '월 5만원 미만'이 4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소프트웨어 구독료는 '월 1만~3만원'과 '3만~5만원' 구간이 각각 14.4%로 나타났다.

다만 '디지털 비용을 잘 모른다'는 응답이 기기 구매(64.6%), 기기 렌탈(37.8%), 소프트웨어 구독(37.2%)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상당수 소상공인이 비용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등 비용 인식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근 3년간 정부의 디지털·AI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은 3.2%에 불과했다.

참여 사업은 AI 교육(50.0%)이

가장 많았으며,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31.3%), 온라인 판로 지원(12.5%), AI 바우처 지원(6.3%) 등이 뒤를 이었다.

참여자의 87.5%는 지원사업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해 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지원사업 존재를 몰랐다'는 응답이 76.2%로 나타났다. 정책 홍보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매출 규모와 종사자 수가 적은 영세 소상공인일수록 정보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은 '운영비 지원(59.0%)', 초기 투자비 지원(35.8%), 맞춤형 교육(16.6%), 컨설팅 지원(14.0%) 순으로 조사돼 비용 부담 완화 요구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가장 기대되는 정책으로는 'AI 활용 교육 및 AI 제품·서비스 도입 지원'(46.4%)이 1위를 차지했으며, 지역 소상공인 육성, 온라인 판로 지원, 스마트상점 보급 사업 등이 뒤를 이었다.

김희중 중소기업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활용 비율은 높으나 아직 기초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매장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운영 및 도입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현장의 감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맞는 정책적 지원이 긴밀히 연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용성 기자 y01404@gwangnam.co.kr



최근 HD현대삼호 회사 아드에서 열린 '알루미늄 케이블 세계 최초 적용 성공 보고회'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HD현대삼호, 세계 첫 알루미늄 케이블 선박 인도

30% 원가 절감·선박 경량화 효과도

HD현대삼호가 세계 최초로 알루미늄 케이블을 적용한 선박을 인도하며 원가 및 품질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HD현대삼호는 최근 '알루미늄 케이블 세계 최초 적용 성공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회사 설계부부장인 심학무 전무를 비롯한 임직원과 HMM, 한국선급, 극동전선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에이치엠엠 제이드'(HMM JADE)로 명명된 이 선박은 극동전선이 개발한 신기술인 알루미늄 케이블이 적용된 첫 사례다.

기존 케이블에 쓰이던 구리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폭등하는 상황에 알루미늄 케이블을 적용함으로써 30% 수준의 원가 절감과 더불어 11t 규모의 선박 경량화 효과까지 동시에 확보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2023년 한국선

급 개념승인 획득을 시작으로 기자재 업체 협의, HMM 선주사 적용 제안, 현장 포설 점검, 작업자 설명회 실시 및 해상 시운전까지 약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됐다.

심학무 HD현대삼호 전무는 "이번 성과는 새로운 기술을 실제 선박에 과감히 적용해 성과를 낸 의의 있는 사례다"며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 및 적용을 통해 회사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영암=한영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가격 경쟁력 확보" 2027 아이오닉 5 출시

현대차, 전체 트림 재편...신규 사양 추가 상품성 강화

현대자동차가 전체 트림 구성을 변경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2027 아이오닉 5'를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현대차는 2027 아이오닉 5의 토탈리전지 모델을 E-Lite, 모던, 프리미엄, 인스퍼레이션, N Line 등 총 5개 트림으로 재편하고, 스탠다드 모델의 경우 E-Value+ 1개 트림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모던은 기존 엑스클루시브 트림의 일부 사양을 최적화한 트림으로 판매 가격이 인하됐다.

인스퍼레이션은 고급 안전·편의 사양이 기본 적용된 최상위 신규 트림으로, 서라운드 뷰 모니터, 전방·측방·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 등



현대차 2027 아이오닉 5 내장.

으로 구성된 '파킹 어시스트'와 동승석 전동시트, 전자식 시트 메모리 시스템, 2열 전동 슬라이딩 시트 등으로 구성된 '컴포트 플러스'가 기본 적용됐다.

이밖에도 현대차는 2027 아이오닉 5의 모든 트림에 테일게이트 비상램프를 추가하고 프리미엄 트림부터 100W USB 충전

포트를 기본 적용해 상품성을 강화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2027 아이오닉 5는 새로운 트림 구성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모델"이라며 "상품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갖춘 2027 아이오닉 5를 통해 고객에게 한층 높은 만족도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2027 아이오닉 5 출시에 맞춰 9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7 아이오닉 5를 구매할 고객 중 200명을 추첨해 디스플레이 테마 1종 구매권을 증정하는 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현대 모델리더 패스포트 인 오키나와 이벤트도 진행해 14일까지 이벤트 페이지에서 설문조사를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오키나와에서 아이오닉 5, 코나 일렉트릭 렌트 시 사용 가능한 13만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소진공, 소상공인 업종전문기술교육생 모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인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에 나선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6년 소상공인 업종전문기술교육'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업종전문기술교육은 급변하는 내수 시장과 트렌드 변화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수요자 선택형 교육 바우처' 프로그램

이다.

이·미용, 외식업, 공예·제작 등 다양한 분야의 전국 120개 민간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해 올해 총 4000명(건) 내외의 소상공인에게 고품질의 현장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교육생의 역량과 필요에 따라 업종별 기초 실습 중심의 '기초 과정', 업종 특화 기술 및 신기술을 접목하는 '심화 과정', 기술 고도화와 인증·특허

취득을 돕는 '특화 과정'으로 세분화해 지원된다.

교육과정별 20~60시간 내외의 교육을 제공하며, 교육비는 국비(90%)와 자부담(10%)을 포함한 회당 20~60만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단, 기초교육은 자부담이 면제된다.

특히 올해는 오프라인 중심이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교육 과정을 추가해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의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하고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윤용성 기자 y01404@gwangnam.co.kr

천년의 영광에서
꽃피는 오백년 단오제

2026영광
백영포 단오제

3기
함께 만드는 영광
같이 누리는 주민

花
꽃피고

鳥
새 울고

風
바람따라

樂
풍류따라

2026. 6. 18. (목) ~ 6. 21. (일)

단오마당 (단오제전수교육관)
축제마당 (법성포뉴타운문화광장)
난장마당 (법성포뉴타운거리)

영광군	농협중앙회영광군지부	지부장 장흥모	서영광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강상호	
영광군의회	영광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용출	굴비골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안수정	
영광군교육지원청	교육장 정병국	영광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정길수	영광산림조합	조합장 정태범
한수원영광발전지력부	본부장 김성민	백수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조형근		

주최·주관 (사)법성포단오제보존회, 재원위원회

후원

국가유공자
영광군
영광군의회
영광군수
굴비골농협